

나주에 '365일 아이 돌봄 보육실' 문 연다... 전남 최초

생후 6개월부터 미취학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평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주말·공휴일 돌봄

나주시가 전남지역 최초로 365일 운영하는 시간제 아이 돌봄보육실을 개원한다.

나주시는 '365일 시간제 보육사업' 위탁 시설로 선정된 빛가람동(혁신도시) 킨더브레인 어린이집이 내달 4일부터 보육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365일 시간제 보육'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윤병태 나주시장의 민선 8기 역점 공약 사업이다.

'영유아 시설 지원 확대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365일 아이 돌봄 보육실'은 맞벌이 부부 등이 야근, 병원 진료·입원 등과 같은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중무휴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 부모나 보호자가 미리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로 나주에 주민등록 주소 또는 직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평일 돌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자정)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이며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녀도 이용할 수 있다.

365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킨더브레인 어린이집은 나주시 그린로 276 에듀캐슬 아파트(빛가람동)에 소재한다.

자세한 이용 방법과 신청 문의 등은 나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365일 아이돌봄 보육실' 운영 시설로 지정된 빛가람동(혁신도시) 킨더브레인 어린이집에서 시설 개원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윤병태 시장은 "전남 최초로 365일 운영하는 시간제 아이 돌봄 보육실 운영으로 나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앞서 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직

면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장성군 '명품' 사인머스켓 뛰어난 품질로 좋은 평가 '고품질 포도 출하 마인드 교육'

장성군이 '명품 사인머스켓 산지'라는 자부심을 이어가기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19일 삼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품질 포도 출하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포도는 유통 단계에서 숙성되는 후숙 과일이 아니어서 품질 고유의 당도, 향기, 빛깔 등을 갖출 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은 이날 교육에서 △비파과 당도 측정기로 측정할 포도송이 하부 당도 16브릭스(brix) 이상 △머스켓 고유의 향 △열은 노란색을 띠 정도로 완숙했을 때 포도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강도 높은 품질 관리 방안, 저품질 사인머스켓 출하 근절대책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2017년부터 사인머스켓 재배에 뛰어난 장성군은 전라남도 우수원예작물 품질평가 대상 수상하는 등 뛰어난 품질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국적인 가격 하락과 품질 저하로 군도 어려움을 겪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박인성 소장은 "포도의 여왕으로 불리는 사인머스켓이 명품 과일로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품질 관리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농가에 당부했다.

장성=김수권기자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해설사 양성 교육 수료

구례군은 9월 22일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구례군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 2기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2기 교육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명의 마을 해설사를 배출했다.

마을해설사는 천혜의 관광·문화 자원을 보유한 우리 군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안내자를 말한다. 특히 배출된 수료생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인 구례읍의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하여 보전하는 지킴이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역량 있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가 발굴되어 무척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물' 개장 2주만에 매출 1억원 돌파...지역경제 활성화

'곡성물' 개장 2주만에 매출 1억원 돌파...지역경제 활성화

곡성군이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이 개장 2주만에 매출 1억원을 돌파했다.

곡성군은 지역농가와 생산업체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난 5일 문을 연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이 지난 20일 매출 1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곡성물은 개장 첫날 4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회원가입 2200명, 1만5000여명이 방문했으며 2주만에 1억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쌀·과일 등 일부 특산품은 연일 품절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곡성물 이용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커뮤니티에 "맛있다, 신선하

다, 또 구매하겠다" 등의 후기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곡성물에는 백세미와 한우, 멜론, 배, 한과, 토란파이, 수제 스트링 치즈, 곡성 관광상품, 생활용품 등 80개 업체 312개 품목이 등록돼 있다. 52개 품목이 등록 대기 중이다.

곡성군은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전 상품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1억 돌파 축하 댓글을 작성한 회원 30명을 추첨해 백세미를 증정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당초 개장 1달 동안 회원 500명, 매출 1000만원을 계획했지만 하루 만에 돌파했고 2주만에 1억원을 달성했



다"며 "곡성물 덕분에 매출이 늘었다는 농가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군, '제8회 지역사회 복지인 어울림 한마당' 성료

담양군은 '제8회 담양군 지역사회복지인 어울림 한마당'이 22일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담양군 주최, 담양군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복지사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단합과 자긍심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이병노 군수를 비롯해 이개호 국회의원, 최용만 군의회 의장, 박종원·이규현 도의원, 군의원과 400여 명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인 15명이 포상을 받았다.

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복지부 장관을 지낸 권덕철 전 장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담양군 향촌 복지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강연이 진행되었다.

최람암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더 나은 행복 담양과 향촌 복지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춘란 재배 기술 기초교육' 90명 수료생 배출



화순군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춘란 재배 기술 기초교육반' 수료식을 성황

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생은 춘란에 관심 있는 군민과 예비 귀농자로 총 106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90명이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은 구복규 화순군수가 참석해 교육생 대표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기념 촬영이 이어졌다.

'춘란 재배 기술 기초교육'은 반려 식물에 관심

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1일까지 5주 동안 총 6회 진행됐다.

춘란 재배법 및 생리장해, 농약 사용 포인트, 분갈이법 등 이론교육과 마지막 교육에서 수료식과 함께 춘란 분갈이 실습이 진행됐다.

실습용 춘란의 품종은 '송옥'으로 향이 좋아 중국 수출용으로 인기가 있는 품종이다. 교육생들은 직접 두 축삭 분갈이 실습을 하고, 실습했던 춘란을 집으로 가져가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화순=박순철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